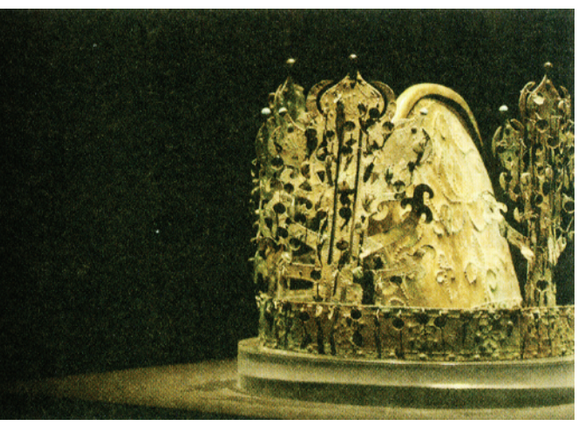
마한

“우리 문화 뿌리 이해하는 단초 K-한류의 ‘마스터키’ 입니다”



정은영 ACC 기획운영과장

정은영 ACC 기획운영과장 ‘잊혀진 나라 마한 여행기’ 펴내

“옹관에서 충격·거룩함 느껴…고대 문화 예술성 찾는 여정”

“몇 년 전 국립나주박물관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전시실 한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나란히 누워 있는 옹관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시각적인 충격과 거룩함을 동시에 느꼈다고나 할까요, 고요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정은영 역사 기행 에세이스트는 평소 여행을 좋아한다. 오래된 것, 잊혀진 것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마한에 관심을 갖게 했다.

최근 그가 마한을 모티브로 한 ‘잊혀진 나라 마한 여행기’(율리시즈)를 펴냈다.

기자는 저자를 평소 국립 문화기관에서 주어진 업무를 차분하면서도 야무지게 처리하는 공무원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간혹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나 단상 등을 이야기할 때면 얼핏 내공이 느껴지곤 했다. 현재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기획운영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정 과장으로부터 이번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 마한에 대한 단상, 답사를 하며 느낀 점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800년 동안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들의 연맹체다. “남도의 경우 약 800년간 마한으로 존재했고, 백제로 존재한 시간은 100여 년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문화 중 일부는 혹시 마한일 수도 있다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정 작가는 말했다.

마한을 주제로 한 역사 기행서를 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자료도 충분치 않고 고대 국가인데다 삼국의 역사에 가려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여성이 고대 정치 연맹체, 옹관이나 고분으로 대표되는 마한에 남다른 호기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정 작가의 마한에 대한 ‘집착’ 또는 ‘호기심’은 생득적이었다. “마한이 있었던 이 땅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말에서 대략 짐작이 갔다.

“함평에서 태어나 신안에서 자랐고,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제 정서의 8할은 이곳에서 형성되었죠. 마한의 땅을 걷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은 제 정체성을 찾고 잊어버린 근원을 만나는 여정이었어요.”

정 과장은 마한에 대해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백제에 복속됐고, 삼국 시대 중심의 역사 기술로 인해 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잊힌 나라’, ‘잊힌 역사’”라고 했다. 다만 영산강 유역의 옹관 등 물질적인 흔적은 남아 있기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기억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한민족’ 등에서 사용하는 ‘한’이라는 글자가 역사상 처음 등장한 나라가 마한이다. 우리의 고대 문화는 삼국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고대 문화의 원형은 삼국 시대가 아니라 삼한 시대에 있다”며 “‘한’이라는 문화적 원형을 떠나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마한의 역사적 의의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K-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원형과 뿌리를 알아야 하고, 그 마스터키는 마한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고 정 작가는 말했다.

이번 답사는 남도의 아름다움과 정의로움 그리고 예술성의 시작이 마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그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걷고, 기록하고, 해석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답사를 했는냐는 물음에 “광주의 신창동 유적지에서는 나무로 만든 현악기, 가죽신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나무 신발골, 옻칠한 사각 칸막이 접시 등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며 “이곳이 음악과 흥이 넘치고, 멋이 흐르며, 맛이 남다른 데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생각됐다”고 정 작가는 언급했다.

더불어 ‘삼국지’의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마한 사람들의 성격이 사납고 용맹스럽다”는 대목을 상상하며, 고경명과 김덕령 장군을 위시한 남도의 의병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현대사의 5·18민주화운동까지 정의를 향한 정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고 학술, 학문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 답사에 식도락의 즐거움이 빠질 수는 없는 법. 구서구석 맛집도 찾아다녔고, 그곳의 이야기를 유적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광주의 마한지와 명화식육식당, 나주의 홍어1번지와 하얀집, 해남의 은혜식당, 무안의 두엄식당 등이 그 예입니다. 추천사를 써준 최유안 소설가도 “음식에 진심인 애호가가 안내하는 미식 여행기”라고 언급해 주셨죠. 맛집 이야기를 특히 담고자 했던 이유는 책을 읽는 독자의 취향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미향이라는 지역 특성을 역사 여행 속에 포섭해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답사를 하고 책을 쓰면서 좋은 자료와 책들을 접했다. 전라남도와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전남의 마한유적’, 최완규 교수의 ‘최완규의 마한 이야기’, 임영진 교수의 ‘우리가 몰랐던 마한-고고학자가 들려주는 마한 이야기’ 등은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2000년 광주MBC에서 제작한 마한 5부작 다큐멘터리, 이후 2023년 ‘세계 속의 마한’까지 14편의 다큐멘터리도 중요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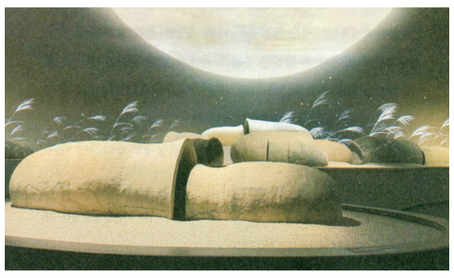
서울대에서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정 작가는 김영사에서 4년간 편집자로 일했다. 이후 행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후 문체부에서만 20여 년간 근무해오고 있다.

‘ACC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문화와 지역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는 말에 “다양한 시간의 층위와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에 사는 것이 참 좋다”며 “ACC는 5·18민주화운동의 흔적인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광주 읍성의 흔적, 고려시대 대황사의 석등 등 여러 시대의 기억이 어우러지는 장소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근무했던 정 과장은 ‘봄날은 간다-정용대 기억의 책’, ‘잊혀진 나라 가야 여행기’를 펴냈다. 향후에도 ‘우리 헤리티지에 대한 사회적 소명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토로 우리 문화유산과 그 현재적 의미를 사회와 소통하는 일에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자리한 장고분은 우리 전통악기 장고를 닮았다 해서 그 같은 명칭이 붙었다.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옹관들.

광복80년 기념 전시·공연

시대를 기억하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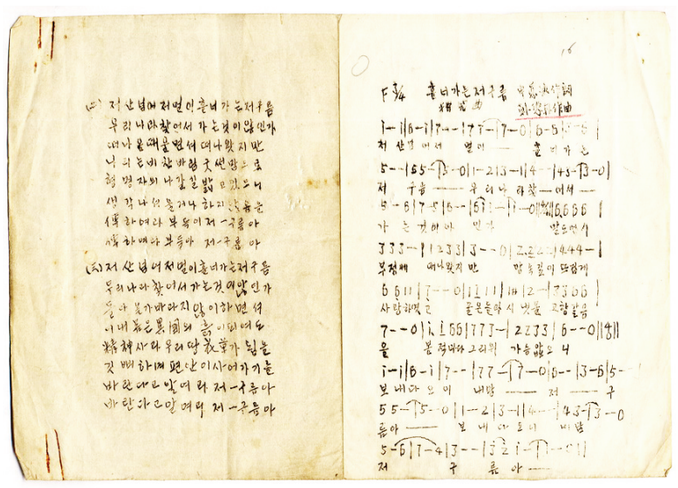
윤상원기념관, 14일부터…민국民國을 만든 노래들’ 전시

항일·오월 민중가요 등…14일 개막식 대신 음악 콘서트

“저 산 넘어 저 멀리 흘러가는 저 구름, 우리나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노래한 ‘광복군가집 제1집’에 수록곡 중 한 대목이다.

노래는 언제나 시대를 기억해왔다. 때로는 투쟁의 함성으로, 때로는 절망 속 희망의 멜로디로. 그 저항과 연대의 목소리가 하나의 전시로 펼쳐진다.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이 발간한 ‘광복군가집 제1집’. 〈국가유산청 제공〉

윤상원기념관(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은 광복 8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기획전시 ‘민국民國을 만든 노래들’을 오는 14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연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부터 1980년 5월의 시민군, 그리고 최근 광장의 시민들까지 각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노래를 통해 되새기는 자리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노래에 담긴 독립의 염원’에서는 ‘독립군가’, ‘용진가’, ‘압록강 행진곡’ 등 항일가요의 악보가 전시된다. 또 2011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광복군가집 제1집’, 그리고 이 노래집을 편찬한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의 삶을 함께 조명한다.

2부 ‘음율 속에 살아 숨쉬는 자유의 열망’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거리에서 불렸던 ‘훌라송(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민중가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지난해 12·3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님을 위한 행진곡’, ‘다시 만난 세계’, ‘젊은 그대’ 등 최근 시위의 노래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 개막일인 14일 오후 2시에는 개막식을 대신해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가수 류의남과 포크밴드 바닥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라 항일가요, 민중가요, 광장가요 등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지병문 윤상원기념관장은 “노래는 시대의 목소리였고, 지금도 살아 있는 저항의 언어”라며 “독립군, 시민군, 광장의 시민들이 품었던 열망이 관람객에게 생생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대를 이어주는 노래

광주보훈청 11일 ‘WE:詩-광복을 노래하다’ 콘서트

악단광칠·로이킴 출연…GIST 협업 AI 창작음원 공개

로이킴

광주지방보훈청 ‘광복 80주년 기념콘서트’ 무대에 오르는 악단광칠. 〈악단광칠 제공〉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은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가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무대 위에 되살리는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은 11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WE:詩-광복을 노래하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의 힘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협업해 AI로 제작한 창작 음원이 최초 공개된다.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음원 녹음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주목받는 ‘악단광칠’이 참여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이들은 전통 장단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예술로 풀어낸다.

무대에는 ‘악단광칠’ 외에도 감성적인 보컬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로이킴, 동양적인 미와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이는 이미희 필 무용단, 젊은 에너지를 가진 댄스팀 아너브레이커즈가 오른다. 각기 다른 장르와 색깔을 지닌 출연진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예술로 되살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며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통해 광복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월 사적지·미술관 시민 투어 프로그램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9·10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어떻게 끌어안는가?’, ‘예술이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오는 9월과 10월 진행하는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9월 20일~10월31일)의 주제다.

첫번째 투어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어떻게 끌어안는가?’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인간을 어떻게 끌어안는가’와 연계해 지역 미술 기관을 투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주 금·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예술이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을 주제로 펼쳐지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5·18 사적지를 둘러본다. 광주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인스티튜트의 공동 연구협력사업인 ‘도시정책과 비엔날레’를 매개로 그동안 미공개됐던 505보안부대와 구 국군광주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투어 해설은 이강하미술관 명예관장을 비롯해 5·18 기념재단 연구원 등 기관의 전문가들이 맡을 예정이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윤범모 대표이사는 “이번 시민 투어 프로그램은 예술과 역사의 접점을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각 문화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투어 해설을 하는 만큼 것으로 광주와 예술, 역사, 정신 등을 폭넓게 사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